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⑩

도랑 위에 놓은 다리, 아이들의 미래를 잇다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 설립 이후 학교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캄보디아 대학 수레꾼 장학생들.

캄보디아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내외 NGO들이 프놈펜·씨엠립과 같은 도시 지역에 학교를 세웠지만,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최북단 국경 인근의 황무지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수레꾼은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름에 '수레꾼'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학교는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 교육부에 정식 등록됐고, 설립과 동시에 공립학교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건물이 완공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입로도 없었고 우물도 없었으며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진흙투성이 비포장도로였습니다. 특히 6개월에 이르는 긴 우기 동안에는 길 곳곳이 패여, 작은 시골 도시인 썸라옹에서 불과 17㎞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만큼 접근이 어려운 오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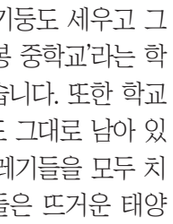
게다가 학교에 등교하려면 작은 도랑을 건너야 했습니다. 건기에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곳이었지만, 우기가 되면 정강이를 넘는 물이 흐르는 길로 변하곤 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수레꾼은 프놈펜에서 공부하는 캄보디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4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신, 장학생들은 1년에 한 번 뽀디봉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2013년 2월 1일, 그 첫 번째 봉사활동이 시작됐으며 그 후 10년간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프놈펜에서 먼 길을 달려와 중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랑 위에 다리를 놓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교문 기둥도 세우고 그 위에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라는 학교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학교 건축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던 공사 잔해와 쓰레기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대학생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삽으로 흙을 퍼 나르고, 포대와 삼태기에 담아 옮겼습니다. 특히 작은 체구의 여학생들까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삽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대학생들이 만든 다리와 교문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이 그 다리를 건너 학교에 들어옵니다. 더욱 기쁜 일은 처음에는 뽀디봉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세운 중학교였지만, 학교를 세우자마자 인근 다섯 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곳으로 진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에는 약 250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는 약 5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국경 오지의 작은 마을에서 750여 명의 아이들이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⑤ 연등 빛 아래, 부처님오신날을 밝히다

소박한 정성 모여 풍성한 봉축 온기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은 몇 주 전부터 분주해진다. 방석 하나까지 정성껏 세탁해 햇볕에 말리고, 오래된 촛대에 손수 광을 내어 본래의 빛을 되찾아준다. 대웅전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말끔히 닦아내니, 고요한 도량은 마치 새 숨을 들이쉬듯 한층 청정해진다.

이른 새벽이면 스님들과 신도들은 마당을 쓸고 꽃을 다듬으며 봉축의 날을 맞을 준비에 마음을 모은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와 산새들의 맑은 화음은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더욱 깊고 맑게 물들인다.

사찰로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의 연등이 길게 이어져, 도량을 찾는 이들을 따뜻한 빛으로 맞이한다. 정성껏 봉안된 등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소망과 발원이 담긴다. 바람결에 잔잔히 흔들리는 연등의 물결은 마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장관을 이룬다.

연등 하나를 밝히는 일은 단순한 의식에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자비심을 되찾아가는 수행의 시작이기도 하다. 연등 아래를 천천히 걷다 보면 분주했던 마음도 차츰 잔잔해지고, 서로를 향한 온화한 마음이 도량 가득 스며드는 듯하다.

또한 이날은 나눔과 베풂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봉축법회가 끝나면 사찰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중공양이 마련되는데, 정갈한 공양상 위에는 비빔밥이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오른다. 자연의 숨결이 깃든 산중에서 정성껏 채취한 취나물과 고사리, 담백한 콩나물과 은은한 빛깔의 도라지와 죽순나물, 무생채까지 곁들여진 비빔밥은 계절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함께한 봉축 정성에 도량 한층 청정해져
연등 밝히며 서로를 향한 자비심 되찾아
대중공양으로 나눔·베풂 의미도 깊어져

대중공양에 올리는 시래기 들깨된장국과 밥은 야외 공양간 한편에 놓인 큰 가마솥 두 곳에 장작불을 지펴 정성껏 끓여낸다. 장작 타는 은은한 냄새와 함께 천천히 우러나는 국물 맛에는 산사의 깊은 정취와 따뜻한 인심이 함께 배어난다.

이어 공양 상에는 정성으로 익혀낸 김치가 더해진다. 깊은 맛을 머금은 배추김치와 보리를 넣어 시원하게 숙성한 얼갈이 물김치는 산사의 담백한 공양과 어우러져 은은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전한다. 떡은 절편과 쑥절편, 팥시루떡과 백설기로 마련된다. 부처님오신날 이른 새벽이면 마을 보살들이 정성껏 떡을 썰며 대중공양 준비를 거든다. 모든 공양은 뷔페식으로 정갈히 마련되며, 배식 또한 신도들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 이루어진다.

해가 저물 무렵, 연등에 불이 하나둘 밝혀지면 산사는 금빛 물결 속에서 더욱 환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빛난다. 봉축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회향한 뒤,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대나무 숲길을 함께 거닐며 정다운 담소를 나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연등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면 탑 주위에 둘러앉아 주지 스님께서 손수 내려주신 향기로운 차를 함께 나눈다. 봉축 행사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성을 보태준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따뜻한 차담 속에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 속 문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함께 나누는 일상의 실천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⑲ 21세기형 산문선 실천 도량

잘 늙은 사람의 품격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얼굴 주름이 많든 적든, 머리칼이 백발이든 까맣게 염색했든, 그것이 그 사람을 보증하지 못한다. 늙음의 품격은 살아온 삶의 질감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나무의 형상이 살아온 세월과 땅속의 사정을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된 내면'이다.

실상사 약사전은 잘 늙은 사람의 인격 같은 풍모를 보여준다. 정면 세 칸 중 왼쪽 오른쪽 칸의 문살은 담백한 격자살인데, 가운데 칸은 꽃살문이다. 넝쿨 모양의 빗교살이 이룬 6각형 사이에 정교한 꽃을 새겨 올리고 적색, 청색, 백색으로 단청했다. 색 바랜 단청은 햇빛과 비바람과 함께한 세월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실상사는 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에 걸쳐 형성된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개산한 사찰이다. 실상사 약사전에 모신 철조여래좌상(보물)은 실상산문이 열릴 때 조성된 부처님으로, 실상사의 천 년 역사를 증언한다. 통일신라 후기에는 선문 사찰을 중심으로 철불이 만들어졌다. 교학보다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실천 수행과 일상을 중시하는 선문에서 금동불의 화려함과 결별한 시대정신을 철불로 표현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실상사는 선문의 실천성을 21세기의 시대적 과제를 화두로 이어간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작은학교, 실상사 농장이 그것이다. 21세기형 산문선의 실상이다.

손영자 작가



실상사 약사전.

